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내 도입부 천장의 문양을 둘러싼 논란과 기억의 표상

유 현*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옥일기’ 문양에 대한 역사적 진실 |
| II. 부산시민공원의 역사와 기억 | 1. 마권판매소에 대한 허구적 상상 |
| 1. 부산시민공원의 역사 | 2. ‘옥일기’ 문양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 |
| 2. 부산시민공원을 둘러싼 기억의 다성성 | V. 맺음말 |
| III. ‘옥일기’ 문양을 둘러싼 논란 | |
| 1. 캠프 하야리아 장교클럽 | |
| 2. 기억갈등과 논란의 봉합 | |

개 요

본고는 대중의 ‘집단기억’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에 앞서 본질적으로 작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논란의 배경이 된 구 캠프 하야리아 부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로서 과거 일제시기부터 현재의 부산시민공원이 탄생하기까지 다양한 ‘집단기억’이 산재한 곳이다.

부산시민공원 개장과 함께 공원역사관 내 천장의 ‘옥일기’ 문양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반일 정서를 담은 이슈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 되면서 논란은 기억갈등으로 접화되어 공공박물관의 정체성까지

*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yoohyeon@korea.kr)

위협을 받았다. 특정 보훈단체가 공원역사관의 역사의식을 문제 삼으며 문제가 된 천장 문양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장기간의 갈등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부산시에서는 ‘옥일기’ 문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장교클럽이 일제시기 마권판매소였다는 허구적 상상을 실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깨뜨리고, ‘옥일기’ 문양과 미 8군 문양을 비교하여 양자는 하등의 상관성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 이유는 공통의 관심사인 민족주의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천장 문양의 존치를 주장하는 집단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 또한 극복의 대상으로 여긴 반면, 천장 문양의 철거를 주장하는 집단들은 과거의 상처를 묻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철거 주장 집단에게 있어서 ‘옥일기’ 문양의 떠올림은 그들 집단의 위치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기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갈등 투쟁을 통해 집단의 단결력과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기억이 가지는 고유의 정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논란이 되었던 기억의 갈등은 가까스로 힘들게 봉합되었지만, 공공의 역사 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집단기억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 부산시민공원, 기억의 표상, 기억의 장소, 옥일기, 집단기억, 기억갈등, 민족주의, 공공의 역사

I. 머리말

2014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옛 범전동 일대에서 부산시민공원 개장식이 열린 직후,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이하 공원역사관) 도입부 천장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이른바 ‘옥일기’ 문양으로 장식되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다.¹⁾ 이 기사를 계기로 일부 보훈단체나 극우사이트 회원 등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공원역사관은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들은 일제 기억의 표상인 옥일기가 어떻게 공립박물관의 전시실 천장에 장식되어있는지를 밝히고 나아가 이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²⁾

이렇듯 이들의 목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이를 관찰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이 논란 과정에서 오히려 주목할 사안은 ‘옥일기’ 문양이 실제 옥일기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논란이 초래한 또 다른 현실은 공원역사관이 자리 잡은 역사적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기억’들을 공론의 장에서 몰아내고 민족주의에 기초한 하나의 기억만을 각인시켰다는 사실이다.³⁾

-
- 1) 본고에서는 일제의 전범기이자 일본육군 군기였던 옥일기와, 역사적 진실이 호도되어 잘못된 정보로 알려진 문양으로서의 ‘옥일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부산시민공원 내 천장의 문양은 기존의 옥일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 하에, 추가적인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잘못 인식된 부분 텍스트는 ‘옥일기’ 문양으로 대체하여 쓰고자 함이다.
 - 2) 본고에서는 ‘기억의 표상’을 특정 기억집단이 과거 시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적 기억과 그에 수반하는 유·무형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3)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베르그송이 표방했던 ‘순수기억’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기억을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뒤르켐의 ‘집단의식의 사회학’을 수용하여 ‘집단기억’ 이론을 제시했다.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2005, 48쪽. 이로써 기억을 개인이 아

이 연구는 민족주의 이념이 역사적 진실을 압도하면서 새로운 ‘역사 만들기’로 이어졌던 공간을 대상으로 논쟁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출발한다. 필자는 이 사안에서 논란과 갈등의 내부에서 문제를 수합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새로운 역사만들기’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신의 행위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일종의 자전적 민족지가 되는 셈이다.

각별히 주목할 사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역사적 층위가 다른 이 공간을 둘러싸고 민족주의를 내세운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을 압도하면서 다른 기억들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미 캠프 하야리아의 반환 초기부터 공원의 명칭을 둘러싸고 이 같은 기조가 깔려 있었다.⁴⁾ 그런데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거쳐 ‘욱일기’ 문양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하면서 이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층위나 목소리는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필자는 먼저 이 공간의 역사와 기억을 먼저 재현하고 이어 논쟁의 주제들도 밝히려 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논쟁 자체가 아닌 논쟁의 전개 방향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인데, 특히 그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관심의 대상이다. ‘욱일기’ 문양의 논쟁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조차 민족주의에 기초한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었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더 확대되고 심화된 사실일 것이다. 결국 일제 잔재의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촉발한 이러한 논쟁의 결과 ‘공공의 역사[public history]’의 공

닌 사회집단의 현상으로 해석하여 기억의 역사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4) 캠프 하야리아 부지의 반환이 확정된 후 부산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다. 다만 공원의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논의가 지속되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논의는 미군 지배의 흔적을 암시하는 ‘하야리아’라는 용어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간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어중간한 타협책 아래 재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근현대 역사만들기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구도 위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부산시민공원의 역사와 기억을 다루는 데, 이것을 통하여 부산시민공원이 자리 잡은 공간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재현하려 한다. 이어 '옥일기' 문양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데 이 갈등의 대상인 캠프 하야리아 장교클럽 공간과 그 역사를 주목하면서 그 역사적 진실과는 무관한 채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과 그 방향을 밝히려 한다. 각별히 여기에서는 필자의 행위도 논의 대상에 올렸는데 이것은 역사적 진실에 기초한 해결이 아닌 갈등의 잠재적 봉합이라는 선택을 논의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II. 부산시민공원의 역사와 기억

1. 부산시민공원의 역사

1910년 일제의 병합을 전후로 동래부 서면 범전리와 연지리 일대의 농지(현 부산시민공원 부지)는 대부분 일본인 자본가의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1930년 이 부지에 부산서면경마장(이하 서면경마장)을 준공하여 일본인 중산층의 오락 활성화와 마권 수익 창출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일제는 필요할 경우 서면경마장을 군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임시군속훈련소 등 각종 군부대 시설로 사용하다 해방이 될 무렵에는 군수품 야적장으로

쓰였다.

한편 1945년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점령군의 자격으로 부산에 입성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서면경마장 일대에 군부대를 주둔시켰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일부 군사고문단과 외교관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 병력만 남기고 부지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미군은 다시 들어와 부산기지사령부 ‘캠프 하야리아’를 설치하여 군수물자 보급과 후방기지 지휘 임무를 맡았다. 이후 캠프 하야리아와 부산의 공존은 1945년 주둔 이후 2006년 기지 폐쇄까지 60여 년간 지속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산 서면 일대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군사기지보호법으로 묶인 캠프 하야리아 인근 지역의 낙후성 문제와 주둔지 반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후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으로 조기 반환이 결정되었으며, 2006년 캠프 하야리아가 폐쇄되고 부대 기능은 대구(위커헨리), 왜관(캠프 캐틀), 진해 등지로 분산 재배치되었다. 캠프 하야리아가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역사적 흔적을 남긴 채 물리적 공간에서는 사라진 것이다. 그 후 2010년에 국방부로부터 부지 관리권을 이양 받았으며, 2014년 5월 부산의 꿈과 희망을 담은 부산시민공원으로 탄생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부산시민공원 부지 연표⁵⁾

1930. 8.	부산서면경마장 개장
1937. 7.	중일전쟁 발발: 일본군 기마부대 설치
1941. 12	태평양전쟁 발발: 일본군 72 병참경비대 설치
1942. 6.	임시군속훈련소 설치: 포로감시원 모집 훈련
1945. 8.	광복 이후 미군 주둔

5)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부산시민공원역사관: 2014 상설전시도록』, 2004. 6~7쪽 요약

1948. 8.	정부 수립 이후 미군 철수, 영사·외교관 등 거주지로 활용
1949.	기존 경마장 동편에 연지동 제 2경마장 건립
1950. 6.	한국전쟁 발발: 부산기지사령부 ‘캠프 하야리아’ 설치
1954. 11.	서면경마장 부지 미군에 공여
1995. 3.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 결성
2006. 8.	캠프 하야리아 폐쇄
2010. 1.	캠프 하야리아 부지 반환
2011. 8.	부산시민공원 기공식 개최
2014. 5.	부산시민공원 개장 및 부산시민공원역사관 개관

2. 부산시민공원 기억의 다성성⁶⁾

1) 부산서면경마장의 기억

피에르 노라는⁷⁾ ‘기억’이란 “사실상 내용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틀이며, 언제나 가변적인 쟁점이고, 전략들의 집합이며, 존재하는 것으로

6)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민공원 부지(구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구술조사를 2011년 에 1차 실시하고, 임시수도기념관에서 2015년 2차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에 종합 구술사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캠프 하야리아 시기를 전후하여 부지와 관계되는 여러 부류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인물들로 일제 징용자, 미 군속, 카투사, 파견직원, 미 8군 연주자, 마을주민, 시민운동가 등 총 17명이었다. 이상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임시수도기념관, 『낮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2015.

7)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알박스의 ‘집단기억’ 이론을 19~20세기 프랑스사에 적용시켜 ‘기억의 터’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여기서 ‘터[lieux]’는 구체적인 공간을 지칭하지 않고 공간의 메타포로 기능한다. 즉 그것은 단순한 기념 장소들이 아니라 진실한 기억의 부채를 나타내는 상징화된 이미지이다. 전진성, 앞의 책(2005), 57쪽. 이러한 노라의 기획은 “프랑스 공동체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에 대한 새로운 상징의 역사를 제안하면서, “지금의 위협에 빠져있고 대체로 잊고 있는 민족의 기억 장소를 발굴하고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0~22쪽

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더욱 가치가 있는 어떤 실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기억을 가진 ‘장소[터: lieux]’들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이고 지적으로 구성된 것에 이르기까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로 이해”되는 곳이라 하였다.⁸⁾ 노라를 인용한다면 부산시민공원은 여러 역사적 기억들이 산재한 ‘기억의 장소’이다.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억의 장소’는 바로 서면경마장이다.

1920년대 일제의 경기부양에 힘입어 산업자본이 조선으로 투입됨에 따라 부산진, 서면 등을 중심으로 공업지구가 형성되고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부산도 근대 식민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일본인 중산층의 소비와 여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면경마장이 1930년 준공되었다.⁹⁾

서면경마장의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일본인 유력 자본가들이었으며 경마장을 출입하고 마권을 사는 사람들도 주로 일본인들이었다. 반면 인근 마을의 한국인들은 경마장에 대한 기억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경마장 울타리 밖에서 호기심에 경마대회를 바라보던 기억,¹⁰⁾ 경마장 마사와 가까운 서면공립보통학교(현 성지초등학교)에서 시끄러운 경마 소리와 말뚝 냄새 그리고 사행심 조장에 항의하던 기억 등 인근 마을 사람들은 경마에 대하여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타자로서의 기억’만 갖고 있을 뿐이었다.¹¹⁾ 부산시민공원 조성 후에도 이 부지가 경마장터

8) 피에르 노라 지음, 김인중 외 옮김, 『기억의 장소』 1, 나남, 2010. 13~14쪽

9) 한국마사회, 『한국경마60년사』, 1984, 71쪽.

10)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1, 2006. 184쪽

11) 경남 동래군 서면 범전리(東萊郡西面凡田里)에 있는 서면공립보통학교(西面公普校)는 지난 가을에 부산경마구락부(釜山競馬俱樂部)에서 그 학교 뒤에 있는 토지를 비밀히 매수하여 경마장을 설치하여, 벌써 추기경마회(秋期競馬會)까지 一차 거행하였는데 그 경마장은 바로 학교 교실 뒤에 있는 관계로 경마회를 할 때에 군중의 소조한 소리가 수업하는 중에 못겨서

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은 경마장에 인접한 마을 사람들조차 자신에게 직접 다가오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¹²⁾

2) 임시군속훈련소를 거쳐 간 군속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경마대회의 기능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고, 병참기지인 부산항의 배후 군용지로 서면경마장에 일본군 10288기마부대를 설치하고 군사용 마필을 훈련 및 지원하게 하였다.¹³⁾ 이어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남방지역 연합군 포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1942년 임시군속훈련소를 설치하였다.

군속의 모집은 공개 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¹⁴⁾,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발적인 강제 모집의 경우도 있었다.¹⁵⁾ 또한 연합군 포로를 관

생도들의 공부하는 데에 마흔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마권을 매매(馬券賣買)하는 그 투기적 광경(投機的光景)이 천진난만한 어린아동들에게 눈에 갖갑게 보이게 되어 사행심(射倖心)을 조장시킬 조지 못한 영향이 미치게 하는 폐해가 적지 안겠나 한다.....(중략).....우리는 농촌에 살고 있는 관계로 경마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였더니 결국 실케 그 광경을 보니 일종의 공개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천진난만한 학교아동들에게 그러한 것을 학교교실겨데서 보이게 해서야 교육상 큰 피해가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경마회를 하지 않을 때라도 말을 수십마리 늘 거기서 먹이고 있으니 조치못한 냄새가 날려와서 위생상에도 마흔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 경마장에 대한 반대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외다.
『동아일보』 1931년 1월 2일

12)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앞의 책(2014), 18~25쪽

13) 『국제신문』 2005년 9월 21일(하얏리아 60년), 5면. “그때의 일본군 기마부대가 10288부대였어요. 기억이 생생해요. 경마장 인근 부지를 점거한 일체는 그곳에서 말을 키우거나 훈련시키곤 했거든. 키운 말들은 북만주로 보냈지요.” 부산진구 법전동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박찬윤(74)씨의 말이다.

14) 『매일신보』 1942년 5월 23일. 조선총독은 군속 모집 기사에서 초봉 월 50엔, 계약기간 2년, 의식주 제공을 조건으로 걸었다.

15) 군속의 자발적 참여는 직업으로서 또는 강제 징용과 징집을 피하기 위한

리하는 일이었기에 고학력자도 다수 포함되었으며¹⁶⁾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보수도 보장받았다.¹⁷⁾ 서면경마장에 위치한 일명 ‘노구치부대’¹⁸⁾에서 두 달간 교육받은 3,223명은 동남아로 보내져 연합군 포로감시 업무를 맡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이들 중 129명은 B급 전범으로 몰려 연합군에 의해 재판을 받아 14명은 사형, 나머지 115명은 동남아 현지와 일본에서 옥고를 치르기에 이르렀다.¹⁹⁾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생존 전범 포로감시원들은 일제부역자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였다. 출소한 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책임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포로감시

군속 선택 등이 있었다. 반면 비자발적 강제 모집은 지역할당제에 따른 공권력에 의한 회유와 협박이 주를 이룬다. 비자발적 강제 모집자는 다음을 참조하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 1, 2009. 207쪽, 324쪽; 채영국, 『해방 후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 포로감시원』, 『한국근현대사연구』 29, 2004. 9~10쪽.

- 16) 입시군속 전범재판 모임인 ‘동진회’가 소장한 군속 사형수 14명 중 9명의 유서를 보면, 이들의 학력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형수 중 다수는 통역이었으므로 영어 구사가 가능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同進會, 『世紀の遺書』, 巢鴨遺書編纂會, 1985. 牛村圭, 『再考世紀の遺書と東京裁判』, PHP研究所, 2004.
- 17) 1931년 당시 한국인 방직자 최고 월급액이 2.6엔이었고, 1942년 당시 한국에서 소 한 마리의 가격이 220엔이었다는 점(송규진 외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연출판부, 2003. 125쪽, 184쪽) 그리고 1942년 조선인 최고 숙련자의 임금이 2엔 정도였다는 점(박기주·김낙년, 『해방 전(1906-43년) 조선의 임금 再論: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임금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9, 2010. 22쪽)을 감안하면 월급 50엔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수의 자발적인 군속 취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입시군속은 곧 강제동원이라는 획일화된 역사 공식을 배제하고자 함이다.
- 18) 입시군속훈련소의 다른 이름으로 부대장 ‘노구치[野口]’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 19)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앞의 책(2014), 59~63쪽

원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배척된 ‘타자’였던 것이다.²⁰⁾

이들은 일본에서 ‘동진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²¹⁾ 이들에게 서면경마장의 임시군속훈련소는 2 개월여 훈련을 거쳐 간 곳일 뿐 특별히 기억에 새겨진 공간은 아니었다. 그래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자신들의 흔적과 자취를 기억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임시군속훈련소 폐지 이후 경마장 부지는 군수품 야적장으로 쓰였으며, 이곳에는 일본군 관리 부대와 한국인 노동자 그리고 한국인 일본군 징집 대기자가 일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군이 떠난 자리를 한국인 징집병들이 자율적으로 군수품을 지키고 관리하는 ‘해프닝’도 있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은 자연스레 흩어졌다.²²⁾ 그리고 부산에 진주한 미군이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20) 늦었지만 한국정부는 2006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국인 BC급 전범자를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인정했고, 보상책에 따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위로금과 생존자 의료비를 지원했다. 『한겨레신문』 2013년 11월 19일

21) 동진회 관련 자료는 다음을 참조하라. 우쓰미 아이코 지음, 이호경 옮김,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동아시아, 2007. 이학래 지음, 김중익 옮김,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민족문제연구소, 2017.

22) 증언자 이문규는 자신이 일본군 징집병이었다고 증언하였지만 실제로 일종의 대기병으로서 징용자와 같은 일은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당시 그는 서면경마장의 일제군 주둔 시기를 기억하는 마지막 증언자였으며,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군의 차별은 심하였으나 소속 부대 내에서 한국인 징집병에 대한 큰 차별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군 부대장이 떠나면서 “우리는 형제의 나라이며 곧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고 혹시나 부대를 이탈하면 이후 탈영병이 될 것을 우려하여 해방 후 20여 일 동안 자체적으로 부대와 군수품을 지켰다. 그 후 일본군이 미군에게 무장해제 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대원들은 하나 둘 씩 근무지를 몰래 빠져나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2015), 66~69쪽.

3) 범전동의 본동 마을 사람들

캠프 하야리아 인근의 부산진구 범전동 본동 마을은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와 떠날 때까지 존속한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은 원래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으나 캠프 하야리아가 들어서고 그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점차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안팎으로 몰려든 상인들이 미군에게 다양한 물품을 팔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PX물품 등 미국 상품이 중간거래자를 통해 한국인에게 팔리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주민들은 미군과 그 동거자에게 방세를 놓거나 상인에게 가게 세를 받는 등 1980년대 후반까지는 수입이 꽤 괜찮았다. 그러나 미군 감축에 이은 부대 폐쇄로 마을 전체가 쇠락하였으며, 2012년 마을 전체가 부산시민공원 부지에 편입되어 타지로 이주함으로써 지금은 마을의 흔적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본동마을 사람들이 캠프 하야리아와 함께한 생활과 기억은 여느 미군 기지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캠프 하야리아 미군과 본동마을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생활체일 뿐 아니라 삶의 방식 또한 일부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초기에 미군들 군복을 빨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상점에 영문 간판을 버젓이 달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장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군과 동거하는 ‘양색시’들조차 자신들의 주요 고객이자 경제공동체로 여겼기에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²³⁾ 본동마을 사람들이 캠프 하야리아와 미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23) 통상 미군 기지촌의 동거녀를 반어적으로 빗댄 의미의 ‘양공주’, 저속한 표현인 ‘양갈보’라 부르는 데 비해 이곳 범전동에서는 보다 순화된 의미인 ‘양색시’라 부르는 것은 특이하다. 이는 부대 인근에 미군과 동거하는 한국인 여성들이 많고, 또한 이들의 씹씹이나 방 월세 그리고 미군 PX물품 중간 연결 등으로 인하여 마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2015), 43쪽

공통의 기억은 당시 미군부대 기지촌에서 가지고 있던 어두운 이면까지 상쇄될 정도로 ‘고마운’ 것이었다.²⁴⁾

4) 캠프 하야리아에서 근무했던 한국인들

낮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에 한국 사람들도 근무하였다. 원래 하야리아는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관리운영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확보된 인력은 통역·엔지니어·노무자들이고 부대 외곽 경비는 위하여 한국군과 카투사가 담당하였다. 이어 사무·전신·서비스·연주자 계통 직원들이 차차 보완되었다. 채용방식도 초기의 특채 형식에서 점차 공채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들은 당시 국내 회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았다.

그러나 미군부대에서 생활하고 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차별적인 대우와 인격적인 무시도 감수해야 했다. 이후 한미관계가 증진되고 미군부대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스스로 재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노조를 결성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²⁵⁾ 이국의 문화 공간에서의 근무했다는 기억은 그들에게 선택받은 위치에서의 경험이였다. 아울러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한국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5) 새로운 기억을 만든 시민운동가들

부산 운동권 출신의 진보적 시민운동가 그룹들은 1995년부터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산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결의대회·반환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캠프 하야리아 반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2016, 33~37쪽

25)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2015), 40~45쪽

환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부산시와 여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야리아 부지 부산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를 확대 결성하고, 부지반환 및 무상양여 축구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치권 및 중앙 정부를 압박하여 마침내 부지를 반환받고 공원을 조성하였다.²⁶⁾

특히 이를 주도한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이라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종전의 노골적인 ‘반미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투쟁의 목표를 ‘부지반환’이라는 용어로 바꾸었고, 시민 일반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선회한 계획은 주효했다.²⁷⁾ 앞서 언급한 범전동 본동 마을 사람들, 캠프 하야리아 근무 한국인, 관변 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들 등의 미군과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기억이 주로 긍정적 입장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진보적 시민운동가들은 반미운동에 대한 투쟁과 성취를 일구어낸 ‘집단지역’을 가진 정치적 공동체였다. 원래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들과 일반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념과 성향이 상이한 부류들이었으나 ‘부지반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또 다른 ‘집단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간직하게 된 것이다.

26)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2015), 46~52쪽 요약

27) 다음은 부산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배다지씨의 증언이다.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결성되고 그 지부로 부산연합도 생겨났다. 이들에게 있어서 ‘반외세’는 ‘민주민족운동’의 본령이었다. 자주통일의 과제로써 미군기지 축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산시킬 방침을 찾던 중, 1995년에 ‘미군기지 하야리아 축출 시민대책위원회’를 ‘부산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로 바꾸었다.” 임시수도기념관, 위의 책(2015), 328쪽

재야 시민운동단체 투쟁 목표의 변환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이들이 추진한 운동의 슬로건을 ‘미군철수’에서 ‘부지반환’ 운동으로 바꾼 단순한 용어의 전환이며, 둘째는 이들이 역사 서술의 주체로서 그들의 강경 반미투쟁의 역사를 또 다른 부지반환이라는 시대적 담론으로 전환하여 노선을 수정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인근 주민은 부지반환 이후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가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이해타산을 예상하게 되고, 공공기관 또한 사회적인 공적 이슈에 대한 기관장의 대외 활동 홍보가 필요하게 되면서 ‘부지반환’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산되고 나아가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축제 마당’이 되었다.²⁸⁾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가세한 ‘집단 기억’ 참여는 당초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반외세 민족의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이들의 축제는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문화적 기억’이 되었다.²⁹⁾

Ⅲ. ‘욱일기’ 문양을 둘러싼 논란

1. 캠프 하야리아 장교클럽

부산시민공원 내 가장 대표적인 보존 건물은 구 캠프 하야리아 장교

28) 당시 ‘캠프 하야리아 부지반환’을 위한 시민운동으로는 ‘부대 앞 목요집회’, ‘부지반환 서명운동’, ‘인간띠잇기’, ‘평화의 풍선 날리기’ 등이 있었는데, 참여자가 재야운동권에서 점차 시민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운동의 양상은 시민축제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29)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부부는 “기억이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알박스의 ‘집단기억’ 이론의 한계-‘집단기억’의 조작성, 개인과 집단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기억을 떠나면 ‘기원’에 소환할 수 있는 매체를 동원하여 ‘문화적 기억’으로 보완했다. 얀 아스만은 알박스의 ‘집단기억’ 개념을 ‘의사소통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기억이 특별한 문화적 형식을 통해 전승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개념을 세분하여 ‘기술로서의 기억’(저장 기억)과 ‘활력으로서의 기억’(기능 기억)으로 구분하고 저장기능은 기억기능의 배경이 된다고 보았다. 태지호, 앞의 책(2014), 44쪽. 여기서 문화적 매체로는 각종 기록물, 텍스트, 건축물, 도상, 묘비, 사원, 기념비, 제의, 축제 등을 들 수 있다.

클럽이다. 이곳은 광복 후 부산의 주둔 미군과 군사고문 그리고 외교관 등을 위해 1949년 무렵에 지어져 1950년 1월에 문을 연 식당 건물이다. 초기에 ‘플라밍고클럽[Flamingo Club]’으로 명명되었다가 이후 ‘해븐클럽[Haven Club]’ 또는 ‘장교식당[Officer’s Mess]’ 등으로 불렸으며 미군 장교들의 식사·연회·공식행사가 열리는 장교클럽으로 쓰였다.³⁰⁾ 천장 중앙에는 미 8군을 상징하는 8각형 마크 속에 십자가형 문양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8개의 별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붉은색 선이 원형으로 뻗어 있다.

건축면적 약 300㎡의 건립 초기 건물의 시공은 미국인 관리자의 지시 아래 한국인 공사감독에 의해 이루어졌다.³¹⁾ 벽체는 벽돌을 쌓아올리고 회를 발라 마감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보수를 위하여 벽지와 페인트 등을 덧입혔다. 천장은 대형 빔 2개를 나란히 걸친 후 소형 빔들을 직각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타설하였다.

이후 장교클럽을 중심으로 건물이 증축 되었는데 입구 우측에는 약 500㎡에 이르는 무대 및 로비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로 만들어져 캠프 하야리아의 주요 실내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쓰였으며, 좌측에는 약 200㎡에 이르는 조리실과 냉장·냉동 창고가 있었고, 클럽 뒤쪽에

30) 증언자 이상오는 부산시민공원 개장 후 우연히 공원역사관에 들렀다가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1950년 당시 약관의 젊은 나이에 장교클럽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했었다. 증언자가 이 건물의 건립일을 기억하는 것은 1950년 초 증언자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과 함께 장교클럽 신축 기념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은 시민공원역사관에 기증했다. ‘기억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구술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31) 위 증언자. 장교클럽 건립과 관련하여서 미 영사관이나 미 8군 사령부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건립 주체를 알지 못한다. 구술 증언자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 미국 관리인의 지시 하에 한국인 감독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당시 공사 주체로 추정 되는 곳은 미 영사관 또는 미 외교부, 미 8군 그리고 미 대외원조처(USOM)이다.

는 약 180m² 크기의 바[Bar]가 있었다.³²⁾ 부지 반환 이후 장교클럽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 증축 건물은 모두 철거되고 장교클럽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였다. 그 후 장교클럽 내부 리모델링과 추가 전시 공간 증축을 통해 지금은 공원역사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림 1] 1950년대 장교클럽 (김한근 제공)



[그림 2] 캠프 하야리아 (2006년 부산광역시 제공)

32)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앞의 책(2014), 12쪽.

이 장교클럽의 존재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2006년 캠프 하야리아 폐쇄 후 부산시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현장을 방문한 이후이다. 다만 이 당시에는 일반인들의 부지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2010년 캠프 하야리아 부지 임시 개방 행사가 열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게 되면서 장교클럽은 미군부대 내 대표적인 건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캠프 하야리아 부지와 장교클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는 미군 측의 과거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정보였다. 미군은 캠프 내 건물의 용도와 명칭 등을 남기지 않는다는³³⁾ 그러나 장교클럽만은 예외적으로 ‘과거에 마권판매소’라 전했고, 주한미군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경마장 부속 건물[Race Track Pavilion]’이라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³⁴⁾ 이 정보는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대

33) 2006년 캠프 하야리아 철수 및 폐쇄 당시 미군은 캠프 내 모든 건물의 명칭과 도로명, 간판 등은 모두 인위적으로 철거되거나 페인트 등을 이용해서 지워지거나 덧입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34) 미군 측의 캠프 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문헌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미군이 캠프 하야리아를 떠날 때 국방부와 부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캠프하야리아 폐쇄식(BASE CLOSURE CEREMONY)’을 가질 때 주한미군 제 19지원사령관 메케일 소장은 “캠프 하야리아는 ... 경마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때 장교클럽(해븐클럽)을 둘러싼 도로는 말 경주로였습니다. 그 클럽의 원형 부분은 그 당시 내기와 입장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캠프 하야리아 폐쇄식 시나리오』, 2006(부산시 시민공원추진단 제공). 둘째는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실려있는주 한미군군사자료연구소의 ‘대한민국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 자료로, 여기서는 장교클럽을 “The racecourse stadium serves as a community club and restaurant.”라 하고 사진 설명에는 “Former Race Track Pavilion, Now a club”이라 하였다. D. Colt Denfeld, 『Pacific Bases Research Anchorage, Alaska』, 1997.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한미군 홈페이지 ‘http://www.usfk.mil/’ 개편 이후 지금은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단행본으로 따로 발간되었다. D. Colt Denfeld, 『American military camps in the Republic of

재생산 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려진 장교클럽 관련 ‘잘못 알려진’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캠프 하야리아 장교클럽은 일제시기 만들어진 건물이다.
- ▷ 이곳은 일제시기 서면경마장의 마권판매소였다.
- ▷ 마권판매소 건물 천장에는 일제를 상징하는 ‘욱일기’ 문양이 새겨져 있다.
- ▷ 미군 주둔기에는 이 ‘욱일기’ 문양 한가운데 미 8군의 엠블럼을 덧 입혔다.

2011년부터 공원역사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역사자료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 마권판매소의 위치가 장교클럽의 위치와 다르고, 장교클럽의 건립 연대가 일제시기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확산된 기존 정보는 역사적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여 널리 재생산되었다.

2. 기억갈등과 논란의 봉합

1) 기억갈등의 전개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천장 문양을 둘러싼 논란은 2014년 5월 1일 부산시민공원이 개장한 이후 20여 일이 지난 5월 21일자 연합뉴스 보도 기사에서 촉발되었다.³⁵⁾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천장에 욱일기 문양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관련 댓글 2,500

Korea, 1866-1996, Pacific Bases Research, 1997. 120쪽)

35) 『연합뉴스』 2014년 5월 21일.

<http://v.media.daum.net/v/20140521063105603?f=o> 참조

여 건 이상, 포털검색사이트 상위에 오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이 논란에서 갈등으로 발전한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속칭 ‘○○’라고 일컫는 극우 사이트 회원들이 항의 실적을 자신들의 사이트에 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민공원역사관에 항의 전화를 하면서 역사관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 후 부산의 모 보훈단체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안을 항의해오면서 장기간에 걸친 ‘기억갈등’으로 진입하게 되었다.³⁶⁾

먼저 보훈단체에서는 2015년 6월 2차에 걸친 공원역사관 항의 방문을 통해 공원역사관 도입부(구 장교클럽) 천장에 위치한 육일기 문양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역사관 측에서는 장교클럽은 미군 주둔기에 세워진 건물로서 일제강점기 마권판매소와는 상관없으며 그 문양 또한 육일기와 무관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 증거자료를 들어 설명하였다.³⁷⁾ 그러나 보훈단체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6차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정식으로 부산시에 천장 문양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언론 기사도 발표되었다.³⁸⁾ 거듭된 부산시와 공원역

36) 원래 부산의 모 보훈단체와 극우 사이트 회원들은 정반대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었다. 전자가 단체의 정체성 유지와 대외적인 활동역량을 홍보하기 위해 항의에 적극 뛰어들면, 후자는 개인적인 성취감과 그들이 속한 집단 내부에서 자기 과시를 위해 개별적으로 항의를 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후자의 경우 항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되어 슬그머니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1년 이상 갈등을 겪은 전자와 차이를 보인다.

37) 대표적인 증거 자료는 미 국립문서관리소 소장 한국전쟁기 미 국방부 항공사진 기록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부산광역시, 『미 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 2013, 85쪽, 122쪽.

38) 『부산일보』 2014년 7월 15일(10면). 이 기사로 당시 보훈단체와 부산시의 갈등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15일 ○○○부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부산시 민공원 역사관 천장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육일기 문양으로 시민들에게 전시되고 있다”며 “이는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숭고한 애국심과 공훈을 부정하고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행위로 조속히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민족정기와 올바른 국가관 정립, 후세들의 애

사관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집단기억의 충돌 양상이 심화되어 마침내 동년 11월 부산시장이 중재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 결과 시장은 육일기 문양 여부와 상관없이 역사혼적의 기억의 장으로서 보존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차후 관련 전문가와 보존단체의 자문회의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2] 기억갈등의 진행 과정

보훈단체	부산광역시
▷ 공원역사관 향의 방문(2회)	▷ ‘육일기’ 논란 해명
▷ 공원역사관 천장 철거 요구	▷ 역사적 근거자료 제시 및 설명
▷ 부산시에 철거 요청 민원(6차)	▷ 매차 해명자료 제출
▷ 언론 상대 기자회견	▷ 반박자료 제시
▷ 부산시장 면담 요구	▷ 부산시장 의견 청취 및 중재
▷ 자문회의 참석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5년 1월에는 「공원역사관 천장 문양 존치 여부」라는 주제로 보훈

국심 함양을 위해 더는 방관할 수 없어 역사관 천장의 육일기 문양을 없애라고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 측은 향후 부산시가 육일기 문양을 철거하지 않으면 규탄 집회와 시 주최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천장 문양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미군 주둔 시 제작된 역사물이라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관계자는 “1948~1950년 미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현재 역사관 건물이 1949년께 건립된 장교클럽으로 확인돼 일제강점기 건물이 아닌 미군 주둔기 건물”이라며 “천장 장식 또한 미 8군 공식 문양을 도안한 근거가 명확해 육일기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장교클럽 건물의 역사성과 상징성, 각계각층의 의견 및 자문을 얻어 부산시 근대건 조물로 지정해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 잔존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망각하고 왜곡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단체 뿐 아니라 역사학자, 시민단체,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³⁹⁾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존치와 철거 부분에서는 논쟁이 치열하였다.⁴⁰⁾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역사적 사실, 장교 클럽 건물의 연혁과 문양의 제작 배경으로 볼 때 절대 일제강점기의 육일기와 연관될 수 없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서로 대립되는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역사적으로는 ‘육일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육일기’ 문양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흔적은 후세를 위해 남겨야한다”는 존치의 주장과, “‘육일기’ 문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연상시키는 문양이라면 과거 치욕과 아픔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기에 당장 없애야한다”는 철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결국 문양의 역사적 진위와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천장 문양의 이미지가 가지는 ‘기억의 표상’만으로 철거를 주장하는 측과 이를 막으려

39)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천장 문양 관련 자문회의 개최(2015.01.28. 부산박물관 회의실, 참석자 12명, 보훈단체 회의 참관)

40) 이 자문회의에 앞서 공원역사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역사관 천장 문양에 대한 인식 및 문양의 존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설문조사(2014.06.11.~2014.06.14.)에서는 총 339명 중 육일기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보인다(15%), 아니다(85%)’였으며, 천장 문양을 철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철거(10%), 보존(90%)’였다. 2차 설문조사(2014.12.09.~2015.01.09.)에서는 총 889명 중 육일기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보인다(22%), 아니다(78%)’였으며, 천장 문양을 철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철거(13%), 보존(87%)’였다. 이처럼 설문조사 결과는 육일기와 상관없으며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본 조사 결과도 자문회의 당시 공개하였으나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편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육일기로 보인다’와 ‘철거해야한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까닭은 보훈단체의 요구에 의해서다. 보훈단체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신입할 수 없으며, 2차 조사 때에는 보훈단체 측의 수시 참관을 요구했었다. 아울러 공원역사관 측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문 취지에 대하여 관람객에게 사전 설명 없이 설문을 진행하였다.

는 측으로 기억갈등의 주체가 나뉜 것이다. 회의는 양측 입장만 거듭 확인하고 당분간 논란이 야기된 천장에 가림막을 설치하자는 중재안만 도출하고는 별 소득 없이 마무리 되었다.

2) 기억의 갈등과 봉합

부산시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수용하여 논란이 된 시민공원역사관 천장을 원형 그대로 유지 보존하되, 시각적으로 천장 문양에 대하여 부산시민공원 BI(Brand Identity)를 활용한 가림막을 설치하는 임시 변통 안을 채택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즉 일제강점기 쓰라린 역사의 상처를 가지신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후손들의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⁴¹⁾



[그림 3] 가림막을 설치한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천장.

41) 공원역사관(기억의 공간) 천장 배너 설치 완료(2015.08.04.). 공사 완료 후 완료 사실을 보훈단체에 통보하고 추가적인 민원 사항을 점검하였다. 보훈단체 측에서는 자신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식하고 만족하였으며,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부산시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역사관 천장 문양의 철거 논란에 대한 찬반 양측은 물론, 캠프 하리아의 반환을 기억의 하는 단체와 시민들조차 근본적으로는 되찾은 부지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의 확보라는 논리가 저변에 깔려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민족주의를 해석하는 ‘기억의 방식’이 상이하였을 뿐이다. 상이한 기억의 방식은 곧 ‘망각하기’의 방식이 같지 않음을 말한다. 니체는 기억보다 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망각은 “파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며 능력의 부재나 결핍이 아닌 조형적인 힘”⁴²⁾을 의미한다. 갈등의 양측에 선 집단의 미묘한 차이는 이러한 ‘망각하기’에서 비롯되었다. 보훈단체가 ‘소극적 망각’⁴³⁾의 기억집단이라면 나머지는 그와는 대립되는 ‘적극적 망각’⁴⁴⁾의 기억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보훈단체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은 ‘육일기’ 문양이라는 기억의 표상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들지 말아달라는 ‘소극적인 망각(수동적인 망각)’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집단기억의 존립 근거를 지키기 위한 ‘강하게 기억하기’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꿀도 보기 싫으니 당장 ‘육일기’ 문양을 없애라”라고 주장

42) 진은영,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 『시대와 철학』 21권, 2010, 161쪽

43) ‘소극적인 망각’은 과거의 억압된 기억에 대한 공포, 상처, 후회로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동적 망각’이다. 이는 한편으로 ‘강하게 기억하기’로 귀결된다.

44) ‘적극적 망각’은 ‘소극적 망각’의 반대 의미로서 ‘능동적 망각’과 부합된다. 진은영은 니체의 망각이론을 수용하면서 집단기억의 능동적 활동을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으로 분석하였다(진은영, 위의 논문(2010), 184~185쪽). 육영수는 라카프라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성찰적 극복하기’를 통해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육영수, 『기억, 트라우마, 정신분석학』, 『미국학논집』 36, 2004, 189~190쪽). 한편 김호연은 망각과는 별개로 ‘역사리텔링’을 기억 치유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김호연, 『역사리텔링과 상흔의 치유』, 『인문학연구』 제21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32~37쪽).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집단의 가치관과 존재의 의미를 알아주기를 강력하게 바랐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천장 ‘욱일기’ 문양 철거 반대 집단은 “역사적으로는 욱일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욱일기’ 문양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흔적은 후세를 위해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적극적인 망각(능동적인 망각)’을 견지하며 과거 극복의 의지를 보였다.

공원역사관 천장 문양의 존치는 공공박물관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역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극히 민족주의 적인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항기억의 등장은 이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의 ‘공원역사관의 천장 문양 개선 사업(가림막 설치 사업)’은 단순히 부산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보훈단체의 민원사무 하나를 처리한 것만은 아니라 여겨진다.

일련의 논란과 봉합은 대항기억 집단과 소통을 시도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의 역사’ 만들기에도 다소간의 수정이 가해졌음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봉합이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V. ‘욱일기’ 문양에 대한 역사적 진실

1. 마권판매소에 대한 허구적 상상

사실 장교클럽(공원역사관) 천장 문양의 존치 여부보다 선행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는 장교클럽이 언제 건립되었으며 그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군 측이 알려준 자료와 이를 인용한 언론의 보도에서는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부산서면경마장의 마권판매소라고 알려졌으므로, 만약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마권판매소가 맞다

면 ‘육일기’ 문양의 철거를 주장하는 측에 더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현 공원역사관 건물인 구 장교클럽은 일제강점기 마권판매소와는 전혀 무관하다. 왜냐하면 우선 장교클럽은 1949년 말 공사를 시작하여 1950년 초에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이다.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보관 중인 한국전쟁기 항공사진 기록물이 이를 입증한다.⁴⁵⁾ 관련 자료 사진에 의하면 캠프 하야리아 부지 항공사진 중 1948년 9월까지의 장교클럽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1950년 8월 항공사진에 등장한다. 아울러 1950년 장교클럽 오픈 당시 근무자였던 이상오(현 90세)의 증언과 그가 기증한 기념사진도 건립 시기가 앞서 말한 1950년 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요컨대 캠프 하야리아 장교클럽은 일제시기 서면경마장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일제시기 서면경마장의 마권판매소의 위치는 당시 신문에 보도된 서면경마장 사진자료 연구조사 결과 마권판매소는 경마트랙 동편에 심판



[그림 4] 1948년 9월 미군항공사진. 부산광역시,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 2013, 85쪽

45) 부산시는 2012년 워싱턴에 소재한 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1,000여 점의 부산 관련 미군 기록사진을 확보하였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민공원 역사문화관 역사자료 수집 및 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3. 참조



[그림 5] 1950년 8월 미군항공사진. 부산광역시, 『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 2013, 122쪽

대·관람석과 더불어 위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⁴⁶⁾ 이곳은 캠프 하야리아 시절 게이트3 부근이며 현 공원의 우물터 서쪽으로, 인근 마을 고로들의 증언도 일관되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⁴⁷⁾

46) 『부산일보』 1930년 11월 17일, 21일. 서면경마장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1930년 추계대회를 앞두고 시설현황을 장황하게 소개한 글에서 확인된다. 출발선상에 설치된 심판석과 그 뒤쪽으로 단차를 두고 설치된 관람석, 경기에 출장하는 말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놓은 예시장[馬見立所], 사무소와 기타 부속건물들이 11월 18일을 기해 대부분 준공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금도 외, 『일제강점기 서면경마장의 조성과정을 통해 본 (구)하야리아 부대 이전부지의 도시사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6), 2012, 140쪽. 『부산일보』 1931년 4월 18일. 이듬해 4월 춘계경마대회 사진을 보면 경마장 내 시설물들의 형태와 관계가 비교적 명확해진다.....(중략).....관람석 뒤쪽으로 평행하게 놓인 건물이 있는데 마권판매소와 투표소를 겸한 사무소 건물로, 이와 직각으로 놓인 건물이 예시장 등으로 추측된다. 이금도 외, 위의 논문(2012), 140~141쪽.

47) 임시수도기념관, 앞의 책(2014) 참고. 2011년 구술조사 초기부터 마을사람들은 마권판매소의 위치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들이 어릴 때 구경 가서 보던 위치가 장교클럽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창기 미군과 언론 측에서 확산된 마권판매소의 위치 자료가 확대 재생산된 상태에서 인근 마을 사람들 구술자료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림 6] 부산시민공원 서면경마장 발굴현장 사진 (2011년 부산광역시 제공)
 장교클럽은 좌측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마권판매소가 있던 자리는
 우측 하단 붉은색 원 부분이다.

일반적인 경마장 운영 관례를 보더라도 경마트랙 안에 마권판매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납득이 어렵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클럽의 전신이 마권판매소라고 잘못 알려진 이유는 이 부지에 대한 기억이 일제강점기 이후 미군부대가 폐쇄된 2006년까지 100여 년 간 단절되었다는 데 있다. 다음으로는 장교클럽 건물이 이전에는 마권판매소였다는 미군 측의 잘못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군 측은 왜 장교클럽과 마권판매소를 동일시하였을까? 1945년 광복 이후 부산의 서면경마장 부지에 최초 미 40사단이 주둔하였고, 이어 6사단이 그 임무를 이어받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대부분의 군부대가 철수를 하였다. 이어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미 24사단이 새롭게 주둔하게 되었다.⁴⁹⁾ 장교클럽이 이전에 마권판매소였다는 미군 기록은 앞서 주둔하였다가 철수한 6사단과 뒤를 이어 주둔한 24사단과의 시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으로 급하게 주둔한 24사단 병력이, 이전 부대의 공백으로 부대의 정

48) 이금도는 당초 서면경마장 마권판매소의 위치는 경마장 동편 관람석 뒤편(서면경마장 출입구)으로 상정하였다, 다만 1949년 가을 한국마사회 주최 '추계경마대회'가 서면경마장에서 동쪽으로 옮긴 '연지 제 2경기장'에서 열렸음을 감안할 때, 새로 신축된 구)하야리아부대의 '장교클럽'이 임시 마권판매소로 활용되었고, 이후 마권판매소로 불리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금도 외, 위의 논문(2012), 144쪽. 이금도의 주장은 시간적 구성으로 본다면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장교클럽이 마권판매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첫째 인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서면경마장 출입구에 마권판매소가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1949년에 현 부산시민공원 동편에 조성된 연지 제 2경마장과 장교클럽과의 거리가 약 300m 이상인 점. 셋째 1949년 당시 서면경마장 부지는 미 영사, UN 및 외교 관계자들, 일부 미군 경비군이 거주하던 공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 자리를 관통하여 마권을 사러갔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요컨대 장교클럽은 마권판매소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49) 부산발전연구원, 앞의 책(2013), 41~47쪽.

보에 대한 인수인계 없이 단지 경마트랙 주변에 자리 잡은 플라밍고클럽의 공간적 위치만을 보고 마권판매소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⁵⁰⁾

2. ‘육일기’ 문양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

장교클럽(공원역사관) 천장 중앙에는 미 8군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있고 붉은색 선이 원형 밖으로 뻗어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일제 ‘육일기’ 문양의 변형된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엠블럼을 분석해보면 독립적인 미군 부대의 문양임을 알 수 있다.

일본제국을 상징하는 육일기(전범기 또는 육일승천기)는 일제 식민 지기를 연상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68년 메이지유신 직후 근대국가 일본의 상징적인 ‘천황의 군대’ 결속을 위해 1870년 6월 13일 일본 육군의 창설을 앞두고 태양 주위로 햇살이 퍼지는 문양의 육군어국기[陸軍御國旗]가 법령으로 제정되면서 육일기가 일본군의 군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문양의 유래는 다양하다. “일본 무사 가문의 징표인 일족문[日の足紋]으로 태양의 빛살이 퍼지는 형상을 도안화 하여 ‘경사스러움’을 나타내며 원래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⁵¹⁾이었다고 하며, “헤이안시대 일

50) 부산미군기지사령부인 ‘캠프 하야리아’의 명칭도 이와 같이 지어졌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부산에 진주한 미 해군함정 프레스캣호의 한 해군 병사가 서면경마장 부지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고향 플로리다에 있는 ‘하야리아경마장’이 떠올라 이곳 부대의 애칭을 ‘하야리아’라 한 것이다(2006년 캠프 하야리아 폐쇄식 기념 연설문 중에서). 한편 ‘캠프 하야리아’의 명칭 문제도 그 정보가 한국 측에 잘못 전달되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캠프 하야리아 사령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언론 보도로 확산되었다.

51) 이가영·문철, 『심볼디자인의 상징적 의미화에 관한 시사점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15, 2014, 405쪽.

본에 전파된 불교 진언종의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영향으로 빗살모양의 광선이 등장하였고 에도시대에 이르면 더욱 널리 보급되어 다양한 색깔과 함께 일상적인 물건 등에도 사용되는 등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인식되어 서민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⁵²⁾”고도 한다. 또한 “천황을 상징하는 왕실 문장에 나타난 국화의 잎이 16개인데 육일기에 사용된 햇살(육광)의 숫자가 16개인 것과 연결⁵³⁾”하여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 이렇듯 일본의 과거 상서로운 상징이었던 태양과 햇살문이 근대의 정치권력과 결합하면서 제국주의의 상징 이미지로 의미의 변형을 가져온 것은, 흡사 “독일 나찌당이 고대 인도에서 생명력과 순환적 재생을 나타내는 만자(卍字)를 아리안인의 인종적 순수성을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Swastika]로 사용한 것⁵⁴⁾”과 동일하다 여겨진다.



[그림 7] 왕실문장과 히노마루 드리고 육일기.
(박미영, 『하켄크로이츠와 육일기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의 메타언어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23, 2017. 392쪽 인용)

⁵¹⁾ ‘16日の足紋’은 일본 황실 문양으로 보기도 한다.

<http://www.kamon.ecweb.jp/5075.html>

⁵²⁾ 천선미, 『일장기와 불교의 상관관계』, 『일본문화연구』 51, 2014. 417~423쪽.

⁵³⁾ 박미영, 『하켄크로이츠와 육일기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의 메타언어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23, 2017.

⁵⁴⁾ 잭 트레시더 지음, 김병화 옮김, 『상징이야기』. 도솔출판사, 2007, 200~201쪽.

캠프 하야리아 장교클럽 천장의 문양 가운데에는 미 8군의 '8'을 상징하는 붉은색 8각 도형이 있고 그 중앙에 흰색 십자가 문양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까지의 도안은 미 8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 엠블럼이자 견장[shoulder strap]이다. 그리고 이 엠블럼 밖으로 미 8군을 상징하는 8개의 별이 둥글게 자리 잡고 다시 20줄의 붉은색 스트라이프 선이 뻗어나간다. 바로 이 둥근 원형과 붉은색 선 때문에 육일기라는 연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둥근 원형은 8개의 별을 담기 위한 디자인으로 보이며, 붉은색 선을 20개로 하였다는 점에서 8줄 혹은 16줄로 되어있는 육일기와는 논리적으로도 연관성이 없다.

미 8군의 역사와 문양 (인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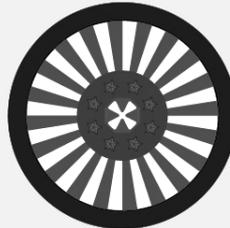
미 8군은 제2차 세계대전 후반 1944년 6월에 창설되어 태평양 전선의 작전에 투입한 후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일본 주둔군이 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로 한반도에서 전투에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부대의 문양(인식표)는 미 8군을 상징하는 붉은색 팔각형 도안과 흰색 십자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 미 8군의 역사와 문양(부산시민공원역사관 제공)

일본 육일기와 미 8군 문양의 차이



육일기는 19세기 말 일본의 군기로 지정되었으며 가운데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 문양과 16줄 또는 8줄의 광선을 활용하여 도안되었고 일본 제국 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공원역사관 기억의 공간 천장은 미 8군 문양으로 도안되었다. 둥근 장식물 한 가운데 미 8군 상징 마크를 넣고 그 주위에 미국을 상징하는 8개의 별이 에워싸고 있으며 천장 끝까지 20개의 붉은색 선을 넣었다.

[그림 9] 일본 육일기와 미 8군 문양의 차이(부산시민공원역사관 제공)

V. 맺음말

기억은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이며,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현재화 하는 정신적(심리적) 현상”이다.⁵⁵⁾ 20세기 이후 인간의 기억에 대한 관심은 정신분석학, 문학, 철학 분야 등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역사(학)’에 있어서 기억은 역사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에서 과거를 재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역사적 성찰의 일환으로 부산시민공원이라는 ‘기억의 장소’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집단들의 기억을 소개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억 만들기와 또 다른 대항기억의 등장 및 상호 기억갈등 전개 과정을 ‘기억의 역사’라는 이론의 토대 위에서 분석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관련 이론을 부산시민공원의 사례와 비교하여 도식화 하는데 무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필자의 관련 이론 지식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필자의 서술 범위는 부산시민공원이 가진 기억의 다성성을 나열하여 살펴보고, 그 속에서 상충되는 기억갈등을 역사적 진실을 통해 풀어보려고 시도한 과정을 자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밝혀둔다.

구 캠프 하야리아 부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억의 장소’로서 과거 일제시기부터 부산시민공원이 탄생하기까지 다양한 집단의 기억이 산재한 곳이다. 서면경마장은 경마를 즐기지 못하는 인근 주민에게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타자의 기억을 간직한 곳이었다. 임시군속훈련소를 스쳐간 군속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흔을 간직한 곳이었다. 범전동 본동 마을은 캠프 하야리아가 생길 때부터 경제적·문

55) 전진성, 앞의 책(2005), 397쪽

화적 공동체였으며 부대와 함께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캠프 하리아 내에서 한국인들은 군속, 군인, 하우스보이, 연주자, 전화교환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하였으며 그들의 이국 문화 공간에서의 근무 기억은 선택받은 위치에서의 경험이었다. 진보적 시민운동가 그룹들은 ‘부지반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사회단체와 시민 일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집단기억’을 만들었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부지반환을 성취하며 또 다른 ‘문화적 기억’을 창출하였다.

부산시민공원 개장과 함께 공원역사관 내 천장의 ‘욱일기’ 문양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반일 정서를 담은 이슈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논란은 기억갈등으로 점화되어 공공박물관의 정체성까지 위협을 받았다. 특정 보훈단체가 공원역사관의 역사의식을 문제 삼으며 문제가 된 천장 문양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장기간의 갈등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부산시와 공원역사관에서는 ‘욱일기’ 문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장교클럽이 일제시기 마권판매소였다는 허구적 상상을 실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깨뜨리고, ‘욱일기’ 문양과 미 8군 문양을 비교하여 양자는 하등의 상관성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갈등은 심화되었다. ‘욱일기’ 문양 천장의 철거에 대한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의 기억 너머에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 이상의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산시민공원을 개장하기까지 앞서 1장과 2장에서 언급한 모든 개인과 집단은 민족주의라는 상상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베네딕트 앤더슨에 따르면 이들은 “동일한 경계와 주권을 가진 것으로 유추가능한 공동체”인 것이다. 이들에게 ‘부산시민공원’이란 ‘함께 되찾은 자랑스러운 땅’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의 상징이다. 다만 민족주의를 해석하는 기억의 방식의 미묘한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큰 갈등을 양산하였다.

즉 천장 문양의 존치를 주장하는 집단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 또한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망각하기’를 시도하는데, 이들에게 ‘적극적 망각하기’는 곧 ‘적극적으로 기억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천장 문양의 철거를 주장하는 대항기억의 집단들은 과거의 상처를 묻고자 하는 ‘소극적인 망각하기’를 주장하는데, 이들에게 ‘소극적 망각하기’는 ‘기억에 다시 떠올리지 않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후자의 대항기억 집단에게 ‘육일기’ 문양의 떠올림은 그들 집단의 위치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기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갈등 투쟁을 통해 집단의 단결력과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육일기’ 문양이라는 기억의 표상에 대한 갈등 또한 집단기억의 정치적인 산물이다. 민족성을 담보한 ‘공공의 역사’ 만들기가 대항기억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공공의 주체는 이 집단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집단기억은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의 표상에는 정치적인 기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일기’의 떠올림은 누군가 또는 어느 집단에게는 역사적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원역사관 내 도입부 천장 문양을 둘러싼 논란은 가림막 설치라는 임시방편으로 갈등을 봉합하였으나, 향후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기억의 표상을 둘러싼 상흔의 치유와 극복은 또 다른 긴장과 과제로 남겨두고 차후에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5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미 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 1, 2013.
-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1, 2006.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민공원 역사문화관 역사자료 수집 및 전시기
본계획 수립 용역』, 2013.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1, 2009.
- 김호연, 『역사리텔링과 상흔의 치유』, 『인문학연구』 21, 경희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2012.
- 박기주·김낙년, 『해방 전(1906-43년) 조선의 임금 再論: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임금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9, 2010.
- 박미영,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에 나타난 문화정체성의 메타언어 분
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 201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니 이 이바구 들어봤나?』, 2016.
-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부산시민공원역사관: 2014 상설전시도록』, 2014.
- 송규진 외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연출판부, 2003.
- 육영수, 『기억, 트라우마, 정신분석학』, 『미국학논집』 36, 2004.
- 이가영·문철, 『심볼디자인의 상징적 의미화에 관한 시사점 고찰』, 『기
초조형학연구』 15, 2014.
- 이금도 외, 『일제강점기 서면경마장의 조성과정을 통해 본 (구)하야리
아부대 이전부지의 도시사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6), 2012.
- 임시수도기념관, 『낮선 이방인의 땅 캠프 하야리아』, 2015.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진은영,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 『시대와 철학』 21권, 2010.
- 천선미, 『일장기와 불교의 상관관계』, 『일본문화연구』 51, 2014.
- 채영국, 『해방 후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 포로감시원』, 『한국근현대사 연구』 29, 2004.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한국마사회, 『한국경마60년사』, 1984.
- 책 트레시더 지음, 김병화 옮김, 『상징이야기』. 도솔출판사, 2007.
- 피에르 노라 지음, 김인중 외 옮김, 『기억의 장소』 1~5, 나남, 2010.
- D. Colt Denfeld, 『*American military camps in the Republic of Korea, 1866-1996*』, Pacific Bases Research, 1997.

Abstract

Controversy over the Patterns of the Ceiling of the Entry of Busan Citizens Park Museum and the Symbol of Memory

Yoo, Hyeon

This research began from the question over the reason why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public acts before the clear historical fact. Previous Camp Hialeah, the background of the incident, was a place where the various collective memories exist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until current Busan Citizens Park Museum, as a representative 'Realms of Memory' of Busan.

Busan Citizens Park Museum was caught up in controversy upon its open, due to the 'Rising Sun Flag[旭日旗]' patterns on the ceiling of the History hall in the Park Museum. As the anti-Japan issue was expanded and reproduced by the media, the identity of the public museum was threatened as the controversy was ignited with the conflict of memory. As a Veterans' organization demanded removal of the pattern of the ceiling, insisting o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History Hall of the Park Museum, the issue entered into a long-term conflict.

Busan city considered that the only solution for the conflict in the

'Rising Sun Flag[旭日旗]' pattern was the historical truth. That was, to break the fictional imagination that the officers' club was the ticket off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by suggesting the positive material, and to determine no relation between the 'Rising Sun Flag[旭日旗]' and the Eighth US army pattern by comparing the two. Nevertheless, the conflict was intensified unexpectedly.

The reason was,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of nationalism, which was the common interest. That is, the organizations who insisted on the maintenance of the ceiling pattern considered the painful memory of the past as the object to overcome, on the contrary, the groups who insisted on the removal of the ceiling pattern had more strong intention to erase the injury of the past.

Interesting point is, recollection of 'Rising Sun Flag[旭日旗]' pattern was a memory that hurts their position and pride of their organization who insisted on removal, on the other hand, it became a good opportunity to show off the power of their unity and identity through the struggle externally. This was originated from the political nature of collective memory.

Controversial conflict of memory was barely settled, however it was an important experience in making the public history, furthermore, it suggests a new solution to cure the historical trauma of the public.

Key Words : Busan Citizens Park Museum, Symbol of Memory,
Realms of Memory, Rising Sun Flag[旭日旗],
Collective Memory, Conflict of Memory, Nationalism,
Public History

